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다음주 독서: 박민웅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조은영 베다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다음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번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김보미 로사
 다음주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김태진 하상바로로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제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1 차헌금: \$ 183
 2 차헌금: \$ 98
 교 무 금: \$ 240

 합 계: \$ 521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시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복음 이어서)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호수를 걸으시어 한숨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제자들이 깊은 밤에 호수 한가운데서 거센 바람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풍랑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가신 것입니다. 마치 위기에 놓인 자식을 보고 허둥지둥 달려가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복음에서 보듯, 어둠과 폭풍우입니다. 칠후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두렵습니다. 또한 폭풍우처럼 불현듯 우리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불어닥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큰 두려움은 아무 기댈 곳 없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치자 거센 바람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놓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보다 먼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듯 평온할 때도, 폭풍우가 몰아치듯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기대어 살 곳은 주님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19 주일]

2011 년 8 월 6 일

<제 1 독서> 열왕기 상권, 19,9 ~.11-13 ~

<제 2 독서> 로마서, 9,1-5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복음, 14,22-33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기쁨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의 성가] 시작: 1 봉헌: 332 성체: 188 파견: 400



생명의 말씀

주님의 끈

“인생은 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끈 중에서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 끈이 있다고 합니다.

1. 매끈: 이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난 돌은 정맞기 쉽다라는 말처럼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2. 발끈: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며 오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3. 화끈: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는, 소신껏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4.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듯이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5. 따끈: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끈을 지니고 산다면 인생에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말한 끈보다도 더 확실한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끈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배 안에서 심한 풍랑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든든한 끈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파도, 그리고 어두움을 의식한 베드로는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우리의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비로운 손을 뻗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든든한 끈이 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란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세상 모르게 뛰는 물가와 끔찍한 범죄 등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회에서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그분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손길을 뻗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을 뻗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든든한 끈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준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공지사항

- 다음 주(8월 13일) 미사 후에 성당 캠프 참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참가 여부를 결정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는 캠프 참가 여부를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리엔테이션 후에는 사목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목위원, 구역장님, 성모회장님은 참석해 주세요. 구역장님들은 참가하시는 분들과 참가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목회의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교리

창세기는 태초에 쓰여졌나?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세 1,1).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無)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1,1~2,4 천지창조)는 실제로 우주가 창조될 때 누가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하나하나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시기(BC 587-538년 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빌론 유배는 희망의 빛이 전혀 없었던 칙흑 같은 어두운 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던 나라도 망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전도 전쟁 중에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던 야훼 하느님은 우리를 완전히 저버리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유배생활을 하는 것은 하느님을 배반하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곤경 속에서도 하느님께 회개하면 그 옛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조상을 구해주신 하느님이 바빌론에서도 구원해 주시리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하느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근원이시며 삶의 원천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언어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해와 달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다시 빛을 주시어 새벽을 맞게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창조믿음이 바로 창세기의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창세 1,3).

김지영 사무엘 신부